

데이비드 A. 드실바 박사 , 히브리서, 5차 세션,

히브리서 4:14-5:10: 위대한 대제사장

© 2024 데이비드 드실바 및 테드 힐드브란트

히브리서 설교의 다음 주요 부분인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에서 저자는 마침내 제사장직과 예수를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으로 생각하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저자는 2장 70절에서 이 주제를 알렸습니다. 이 부분이 시작되면서 저자는 이어지는 내용에서 결론을 도출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은 이전 부분이 끝난 방식과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히브리서 4:12-13은 두려움의 감정에 효과적으로 호소하여, 듣는 사람들이 예수에게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지 두려워하게 했습니다. 4, 14-16은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듣는 사람들이 예수와 연결되어 있는 한 하나님께 다가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확신에 대해 말합니다. 또한 단순히 대조를 통해서가 아니라 히브리서 2, 16-3, 1에서 마주친 내용에 근거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히브리서 2, 16-3, 1에서 예수를 동정심 많고 충실한 대제사장으로 모시는 개념이 처음 소개된 곳입니다.

5:1~10에서 우리는 저자가 예수를 대제사장으로 생각하는 것을 진지하게 탐구하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그가 세 가지 근본적인 움직임으로 이것을 하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5:1~3장에서 제사장의 일반적인 기능을 살펴봅니다. 그런 다음 4~6절에서 우리는 예수가 이 직분에 임명된 것에 대해 생각하고 예수를 대제사장으로 말하는 것이 올바른지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7~10절에서 예수께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채울 준비를 하십니다. 설교자는 5장 10절에서 바로 7장 초반으로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대신 잠시 멈추어 청중에게 5:11~6:20에서 더 직접적이고

강렬하게 도전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투자하신 것에 부응하도록 하는 것이 전략적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프레젠테이션의 초점이 되는 부분 이후에 저자는 마치 한 걸음 물러나 청중이 주의를 기울이고 현재 순간에 위험에 처한 것의 위험을 더욱 충분히 이해하도록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4:14-16에서 저자는 여러 면에서 그의 설교의 핵심 호소력을 제시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을 통과하신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시니,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붙잡읍시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대제사장이 계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와 똑같이 모든 면에서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자. 그러면 우리가 자비를 받고 때맞은 도움을 위한 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세 구절의 내용의 중요성은 설교자가 10장 19절에서 23절까지에서 이 동일한 내용으로 돌아가는 데서 드러난다. 저자가 예수의 제사장적 사역과 희생에 대한 길고 설명하기 어려운 담론이라고 부르는 것의 반대편에서 말이다. 4:14에서 16절과 10:19에서 23절을 나란히 비교해 보면, 둘 다 위대한 대제사장을 갖는 것의 유익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가지 모두 듣는 사람들에게 고백을 굳게 지키라는 권고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모두 “그러므로 가까이 다가가자”는 권고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확신과 권고는 우리가 다음 몇 가지 프레젠테이션에서 연구할 전체 중심 부분을 괄호로 묶습니다.

청중이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는 운동에 동조함으로써 잃었을 수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저자가 개종자들이 이러한 동조의 결과로 얻은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시고, 하늘을 가로지르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시므로, 우리는 고백을 붙잡읍시다. 설교의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면 저자가 수신자들이 잃은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여러 지점에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휘장의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 소망에 그들의 영혼을 위한 닳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선구자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들어가셨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성소 자체로 들어갈 담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영역에서 더 좋고 오래가는 소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먹을 권리가 없는 제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 여기, 4장 14절에서 저자는 듣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진 큰 특권을 상기시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이자 하나님의 은총의 중재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 사제일 뿐만 아니라 천사일 뿐만 아니라 바로 신의 아들입니다. 여기서 아들이라는 주제는 청중에게 예수가 신성한 은혜의 근원에 가까웠음을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주에서 아들이로서 예수의 지위를 나타내는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친구들과 추종자들이 견뎌내는 데 필요한 것을 성공적으로 얻기 위해 하나님과 예수의 전략적 위치를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예수가 하늘을 가로질러 건너갔다는 말은 설교자의 우주론에 대한 창문을 제공합니다. 저자는 항상 복수형으로 언급하는 눈에 보이는 하늘을 이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창조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승천하면서, 예수는 물질적 창조물, 눈에 보이는 하늘을 포함하여 그 너머로 건너가서 하늘 자체, 영원한 영역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저자에게는 물질적 창조물, 눈에 보이는 영역에 속하는 모든 것은 일시적이며 실패할 운명입니다. 하지만 예수가 간 곳, 눈에 보이는 하늘의 저편에는 영원한 현실이 있습니다.

투자 해야 할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고백을 붙잡자고 촉구합니다. 이것이 설교의 주요 목표입니다. 듣는 사람에게

필요한 사고방식과 서로가 희망을 붙잡는 데 필요한 관계적 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백은 그들이 염두에 두는 믿음의 덩어리가 아니라, 오히려 행위, 고백, 그들이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좋은 것들에 대한 말과 삶의 증거일 것입니다. 설교의 마지막 부분인 13절 15, 16절에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 즉 그의 이름을 인정하는 입술의 열매를 드리자고 촉구할 것입니다. 외부인의 반응을 두려워하여 신성한 후원자에게 증거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말입니다. 여기서 고백을 붙잡는 것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파레스시아의 행위, 담대함의 행위이며, 지지하지 않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후원, 태양의 은총은 당신이 내 새롭게 찾은 충성심을 반대하기 때문에 당신이 나에게 가하는 모든 것을 견뎌낼 가치가 있다고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 대제사장이 그들의 약점을 완전히 공감하는 분이며, 그들이 시험을 받은 것과 똑같은 모든 면에서 시험을 받았지만, 예수께서는 타협 없이, 죄 없이 그 시험을 통과하셨다는 한 가지 뚜렷한 차이점이 있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러므로 태양 아래에서 듣는 사람들은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초인적 중재자의 모든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으셨지만, 인간 중재자를 갖는 혜택을 전혀 잃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많은 아들과 딸들의 삶과 피를 온전히 나누신 경험 때문에, 그는 많은 제자들이 직면한 어려움과 도전에 대해 친밀한 지식과 공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자는 그들에게 촉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비를 받고 적절한 도움을 위한 은혜를 얻기 위해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에 가까이 가자. 은혜의 보좌에 가까이 가라는 이 권고는 적어도 일부 청중이 직면한 현재 과제인 떠내려가고, 돌아서고, 뒤로 물러서는 것에 대한 적절한 호일입니다. 예수님의 중재 덕분에 청중은 끈기 있게 버티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정을 위한 그런 자원이 있는데 어떻게 부족함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 구절에서 저자는 임박한 도움의 가용성에 근거하여 듣는 사람의 확신을 불러일으키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4:12-13과 히브리서 4:14-16을 나란히 놓고 보면 이 설교 전반에 걸쳐 설교자의 반복적인 수사적 전략이 어느 정도 보입니다. 두려움에 대한 호소는 확신에 대한 호소와 일치하므로 이 전략을 반복함으로써 저자는 듣는 사람이 이탈을 두려움과 연관시키고 확신을 가지고 확고하게 남을 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 청취자의 상황에 대한 중요한 대안적 참조 프레임을 계속 제시했습니다. 기독교 운동에 가담한 것은 개종자들을 사회적, 경제적으로 그들의 도시의 주변부로 밀어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또한 그들을 우주의 중심, 은혜의 보좌, 신의 보좌에 더 가깝게 이동시켰습니다. 이러한 사물의 관점을 채택하고 이웃과 사회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은 신으로부터 더 멀리, 우주의 중심에서 더 멀리, 신과 관련된 한 주변부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5장 1절에서 10절까지, 히브리서의 설교자는 제사장의 관점에서 예수의 역할과 업적을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첫 번째 구절에서 오경에서 알려진 제사장의 기능과 직분에 대한 일반적인 언급을 바탕으로 제사장의 역할과 자질에 대한 정의를 제공함으로써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대제사장이 사람들 가운데서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의 일에 관하여 사람들을 대신하여 세워져서 죄를 대신하여 예물과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정의는 중개인으로서의 사제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즉, 인간을 대신하여 인간과 신 사이에 서서 신과 상호 작용하여 사제가 대표하는 인간에게 신적 혜택을 보장하거나 인간이 신에게 제시한 모욕, 즉 죄로 인해 신-인간 관계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자가 특히 강조하고자 하는 사제의 한 가지 특성은 자신이 중재하는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 구절에서 계속해서, 대제사장은 무지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열정을 조절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자신도 약함에 굴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자신을 대신하여 죄 제물을 바칠 의무가 있습니다.

중재가 필요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전형적인 사제의 동정심의 근원은 사제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는 자신의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언약의 모든 요구 사항을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약점에 취약한 형제 자매에 대한 분노나 분노와 같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무지하고 방황하거나 잘못을 저지르는 죄라는 용어를 통해 설교자는 고의로 저지른 죄가 아니라 우연히 또는 무지로 저지른 죄를 강조합니다. 모세의 율법, 토라 자체는 고의로 저지른 죄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습니다. 토라의 표현은 높은 손으로 저지른 죄이며, 히브리서 저자는 10장 26절의 유명한 경고 구절 중 하나에서 설교 후반에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 설교의 과정에서 설교자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다른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총과 용서를 중재할 위치에 서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제사를 드려야 했다는 사실을 여러 번 언급합니다. 이 요구 사항은 레위기 16장의 속죄일 의식에서 매우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으며, 이는 특히 히브리서 9장에서 예수님의 제사장과 중재자로서의 사역에 대한 히브리인들의 중심 담론에 매우 중요한 배경을 형성합니다. 아론으로 시작하는 대제사장들은 먼저 대제사장과 그의 가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수소의 피를 바쳐야 했고, 그 후에 그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첫 번째 염소의 피를 바쳤습니다. 저자는 7장 27절에서 이 주제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사제들 사이의 결함이지만 예수의 결함은 아니다. 저자가 이미 강조했듯이, 예수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면에서 유혹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었다. 그는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서게 될 하나님에 대한 모욕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여 효과적인 중재자로 행동하기 전에 제거해야 했다.

저자는 5장 4절에서 6절까지 제사장 임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아무도 이 영예를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아론도 부르심을 받았듯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대제사장이 되어서 스스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고 말씀하신 분이 그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가 다른 곳에서 말한 것처럼, 당신은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그리스와 로마 종교와 유대교의 종교적 관행에서 제사장은 스스로의 주도로 역할을 맡는 것이 아니라 전형적으로 선택되거나 임명되었습니다. 이것은 특히 이스라엘에서 그랬는데, 레위 지파의 구성원만이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었고, 그 지파 내의 특정 씨족만이 제사장으로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아론 자신은 하나님에 의해 대제사장으로 선택되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의 부족과 씨족에 따라 허락하신 것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성소와 거룩한 것들에 접근한다면, 그 사람은 토라의 특정 법이 명확히 밝힌 대로 죽음의 위협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예수가 아론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으로 임명되었음을 보여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설교자는 그가 다시 인용한 시편 2편, 너는 내 아들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를 시편 110편 4절과 연결합니다. 이 시편도 하나님께서 특정한 너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니라. 시편 110편은 유다 왕국의 군주들을 찬양하는 소위 왕의 시편 중 하나였습니다. 이 특정 시편은 이스라엘 왕이나 유다 왕에게 왕의 권위를 가질 뿐만 아니라 특정한 제사장의 권위를 가질 수 있는 특별한 특권을 강조합니다.

시편 110편의 저자는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되돌아보며 그러한 일에 대한 성경적 선례를 찾고, 레위인이 아닌 사람도 제사장의 관할권을 갖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편 110편은 또한 예수와 관련된 메시아적 텍스트로서 기독교계에서 이미 확립되었습니다. 많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시편 110 편

1절을 언급하지만,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히브리서의 저자는 4절을 읽고,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니라. 그는 거기서 예수가 제사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 권위 있는 근거를 발견했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유다 왕에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당신이 영원히 살 것이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초기 교회가 예수가 불멸의 삶으로 부활했다는 믿음 때문에 이 시편의 본문은 훨씬 더 문자 그대로 읽힐 수 있습니다.

예수의 끝없는 삶은 영원히 죽음의 권세를 넘어섰으며, 그가 영원히 이 제사장으로 남을 수 있게 해줍니다. 저자는 곧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멜기세덱의 모습과 레위 제사장직과 관련하여 예수의 제사장직에 대한 멜기세덱의 의미로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으로선 그는 적어도 시편 110편에서 예수를 메시아 왕국의 메시아이자 왕으로서 그리스도의 존엄성뿐만 아니라 제사장직의 존엄성으로 임명한 것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확립했습니다.

저자는 5장 1-6절에서 예수가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었다는 사실을 확립한 후, 7-10절에서 이 직분에 임명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측면을 고려합니다. 7-10절은 실제로 앞의 구절에서 시작된 문장을 이어갑니다. 이 구절은 저자가 종속절을 차례로 쓰면서 그리스어를 쓸 때의 편안함을 엿볼 수 있는 곳 중 하나입니다.

그에게는 영광이지만 현대 그리스 학생들에게는 악몽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그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날에 큰 부르짖음과 눈물로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기도와 중보를 드리셨고,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경건함으로 인해 들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는 고난을 겪으심으로 순종을 배우셨고, 온전해지신 후에는 그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으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하나님께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 문장을 그리스어로 보면, 이 문장의 강조점과 무게가 어디에 있는지 많은 영어 번역보다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영어 번역은 필연적으로 이 자료를 여러 문장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제가 한 것처럼요. 하지만 이 문장의 진짜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겪으심으로 순종을 배우셨고, 그분을 순종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그것에 의존하며,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의 장식입니다. 이 구절을 살펴보면, 우리는 먼저 예수가 필멸의 삶 동안 깊고 열정적인 경건함을 보인 이미지에서 시작합니다. 그는 죽음에서 그를 구출할 수 있고 그의 경건함 때문에 들으심을 받은 자에게 큰 소리와 눈물로 기도와 청원을 드렸습니다. 이 이미지를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도 알려진 겐세마네의 에피소드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한 예수께서 깊은 감정적 투자로 고통 속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심지어 땀을 흘릴 정도로, 마치 큰 피방울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저자의 마음일 수 있지만, 우리는 또한 이 동일시에서 조사해야 할 몇 가지 가정이 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을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으로 동일시하는 것이 기도의 내용인 하나님, 저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세요를 드러낸다고 가정합니다.

또한 그것은 예수가 겐세마네에서 드린 기도를 어떤 의미에서 들렸다고 여기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십자가 처형이 어쨌든 일어났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것은 또한 우리 저자가 처음부터 이 특정한 복음 전통에 익숙했을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많은 히브리 학자들이 저자의 사고방식과 언어에 대한 가능한 출처로 바라보는 또 다른 자료는 제2 성전 시대 전반에 걸쳐 경건한 사람들의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묘사와 언어일 것입니다.

시편의 많은 부분은 큰 고뇌와 눈물의 장소에서 말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카비서 2장과 마카비서 3장과 같은 텍스트에서 기도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자주 애통과 눈물로 기도하거나, 울부짖음과 눈물로 최고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카비서 2장 11절에서, 안티오쿠스 4세의 리시아스 포위 공격에 직면한 유대 사람들은 애통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마카비서 3권에서 성전이 모독의 위협을 받았을 때, 사제들은 최고신에게 울부짖음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같은 책의 후반부에서, 이집트의 유대인들이 처형을 기다리기 위해 히포드롬으로 몰려들었을 때,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은 눈물 어린 청원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기도에 들어가는 감정적 투자는 히브리서 5:7-8에 나오는 예수의 초상과 매우 흡사합니다. 따라서 설교자가 기독교 문화권에서 알려진 갯세마네 전통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경건한 자들의 열렬하고 감정적인 기도의 문화적 공명을 끌어내고 있다는 것은 매우 타당합니다. 저자의 목표는 예수의 경건함이 대제사장직을 차지하기 위한 필수 자격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기도를 들으시고 실제로 그의 수난의 반대편에서 부활의 의미에서 그를 죽음에서 구출하심으로써 이를 확증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육신으로 계시는 동안 기도와 그것이 가져오는 하나님의 은총의 보좌에 대한 접근을 활용하셨으며, 그 경험에서 그의 반대자들이 그에게 가져온 모든 적대감, 고통, 수치를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찾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는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상당히 온화한 괴롭힘 상황에서 저자가 청중에게 하라고 요청한 바로 그 일을 하는 모범을 제공합니다. 그가 아들이었지만 이 구절이 이 문장에 어떻게 들어맞는지는 해석에 있어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영어 번역은 종종 이 구절을 앞의 구절이 아닌 뒤의 구절에 붙입니다.

그는 아들이었지만, 그가 겪은 일로부터 순종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자가 12장 5절에서 11절에서 말할 내용과 상당한 갈등을 빚습니다. 그 구절에서 아들 또는 딸이 되는 것은 겪거나 경험한 일을

통해 순종을 배우는 것과 전혀 상충되지 않습니다. 사실, 저자는 그러한 교육적 훈련이 바로 진정한 아들과 딸이 기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가 이 구절을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겪은 일로부터 순종을 배웠다는 의미로 들렸다면, 그는 몇 장 뒤에 언급할 요점과 모순될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이 실제로 앞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데 더 잘 이해된다고 믿습니다. 그는 아들이었지만 경건함으로 인해 들렸습니다.

저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 편애나 편애가 아니라 청원자의 덕과 헌신을 인정하신 사례라고 말하고자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응답하신 것은 설교자의 청중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공정하게 나타내는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동일한 경건함과 헌신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아들됨은 예수님에게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응답하시는 면에서 청중들보다 유리한 점을 주지 않았습니다.

kaiper라는 단어가 히브리서 7:5와 12:17에서 모두 뒤에 오는 것이 아니라 앞에 오는 것을 한정하기 위해 다시 명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 저자가 예수께서 고난을 겪으심으로 순종을 배우셨다고 썼을 때, 그는 일반적인 그리스 문화 격언과 언어 유희인 emathen , epathen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 그는 배웠고, 고난을 겪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스킬로스와 소포클레스에서 이 패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예수는 많은 아들과 딸들의 선구자이며, 그들은 또한 고통을 통해 또는 오히려 고통을 통해 경건함과 순종을 형성하여 그들 안에 의로움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 열매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그들을 형성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것은 다시 12장 5절에서 11절에서 전개될 것입니다.

저자가 히브리서 5:9에서 예수가 완전해졌다고 말할 때, 그는 예수가 자신의 모든 잘못이나 버그를 해결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히브리서에서 완전함이라는 언어는 무언가 또는 누군가가 목표, 즉 텔로스로 인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표, 텔로스에서 같은 어근이 완전함, 텔로스, 즉 최종 상태에서 발견됩니다.

이 구절에서 완전해지는 것은 그가 고난을 통해 배우던 그의 육신의 날들에 있었던 것과 구체적으로 대조됩니다. 예수의 승천과 하늘 영역으로의 건너가심은 그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거처인 장소로, 그의 완전해지는 것을 구성합니다. 그의 여정의 완성, 그의 성육신에서 시작되어 그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계속된 임계 상태를 통한 이 통과 의례는 이제 그의 승천과 세션,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심에서 완성되고, 완전해집니다.

예수께서는 높은 위엄의 오른편에 있는 이 특권을 그의 추종자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저자는 여기서 그가 이 높은 지위에서 계속해서 그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영원한 구원의 근원임을 강조합니다. 저자는 여기서 듣는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 이 대제사장에게 충실해야 한다는 지속적인 필요성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그의 은혜를 계속 경험하고 그가 이 삶의 여정의 다른 쪽에서 가져올 궁극적인 은혜를 계속 경험하려면 말입니다.

그는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에 의해 임명되었다는 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상기시킴으로써 이 내용을 마무리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는 여기에서 바로 7장의 시작으로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이 설명에서 일시 정지 버튼을 눌러서 듣는 사람들을 흔들어 놓고 그들이 설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로 전진하는 데 전념하도록 하는 여담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은 저자의 수사학적 전략을 여러 가지 중요한 방식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첫째, 4:12-13에서 두려움에 호소한 데 이어 저자는 4:14-16에서 확신에 호소합니다. 듣는 사람들은 개종할 때 시작한 여정의 끝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완벽하게 자리 잡은 완전히 동정적인 중재자가 그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즐깁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자는 그들에게 그들이 겪는 도전에 직면하여 인내하는 것이 전적으로 가능하다고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인내하기로 결심함에 따라, 그들은 모든 단계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같은 권고는 또한 저자가 은혜의 보좌에 가까이 다가가라고 촉구하면서 그의 이념적 전략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그들이 함께 모이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사실상 그들이 우주의 중심, 곧 하나님 자체의 보좌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암묵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는 곳에서 함께 모이는 것을 떠나거나 위축될 때, 그들이 뒤에 남겨둔 사회로 다시 떠내려갈 때, 그들은 우주의 신성한 중심에서 더 멀어져 주변부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와 관련하여 자신을 발견하는 곳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들의 이웃들이 사회적으로나 개념적으로 그들의 도시에서 그들을 주변부로 사실상 밀어낸 곳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회에서 주변부로 그러한 움직임은 또한 그들을 우주의 중심, 은혜의 보좌,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 더 가까이 이끌었습니다. 5.1-10에서 저자는 예수를 중재자 또는 대제사장으로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는 이와 관련하여 예수의 부르심의 합법성과 그의 개인적 자격에 초점을 맞추고, 성경과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의 제시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듣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들을 위한 신성하게 임명된 중재자이며, 어떤 독선적인 방식으로 이 직분을 스스로 떠맡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시킵니다.

그는 실제로 하나님의 최후의 대제사장으로, 듣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그리고 그 후로도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이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의 예수님의 헌신과 하나님 우편에 있는 대제사장으로 임명되기 위해 고난을 기꺼이 겪으셨다는 사실은 다시 한번 감사를 불러일으키고 충성심을 북돋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시 한번 듣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그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내셨는지 상기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구절의 결론적인 진술은 듣는 사람들이 영원한 구원, 아들이 제공할 영원한 구원을 누리기를 바란다면 아들을 향한 지속적인 순종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줍니다 .

그는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닌, 그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구절은 또한 우리의 환경에서 우리에게 도전적인 말씀을 계속 전합니다. 무엇보다도 히브리서 4:14-16은 믿는 자들에게 모든 연령대에서 기도하라고 촉구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예수께서 자신을 바치심으로써 많은 아들과 딸들이 얻은 가장 중요한 혜택 중 하나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기도는 단순한 의식이나 약한 자의 퇴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시련, 시험,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찾는 수단이며,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내고 충실함과 순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사장이 자신이 중재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동정심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든 대제사장이신 예수이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사역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대한 동정심이라는 본질적인 특성을 계속해서 구현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가혹하고 판단하는 정신에 대한 치료법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약함, 죄의 권세에 대한 우리의 책임, 죄를 피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찰에서 죄인을 사랑하고 돕는 방법을 아는 온화한 정신이 나오며, 이는 항상 죄인들을 자신에게로 다시 부르시는 위대한 대제사장의 사랑과 보살핌을 반영합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의 모범은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일하려는 우리의 헌신의 결과로 겪는 고난이나 고통을 마주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모범이 됩니다. 그는 용감한 헌신으로 이것을 행했지만 정직하고, 아무런 제약도 없는 기도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했습니다.

예수께서 경험하거나 겪으신 일은 그에게 순종을 배우고 이 핵심 가치에 대한 그의 친분과 기반을 더욱 강화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

그러한 경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기회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설교자는 모든 종류의 고통이나 고난을 거룩하게 하려고 하지 않지만 , 예수님과 일치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어려움을 확실히 거룩하게 합니다. 고난이나 고난을 겪는 것과 같은 그러한 에피소드는 성령에 의해 훈련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덕목으로 형성되고 형성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온 마음을 다한 헌신의 덕목으로 형성될 기회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고통을 견뎌내는 곳마다 그들의 소명의 가치와 그들의 소망이 그들의 영혼에 깊이 심어집니다. 그들의 욕망에 대한 신을 향한 지향이 강화됩니다. 고통의 불길에 맞서 인내함으로써 그들은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강한 감각에 도달하고 그리스도와 협력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우선순위 목록의 맨 위에 두는 법을 배웁니다.

마찬가지로, 불의가 받아들여지는 규범인 곳에서 정의를 외치는 목소리는 필연적으로 죄인들의 적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비전과 인간 사회에 대한 뜻에 대한 자신의 증거를 침묵시키려는 거부는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각인시키며,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순종적인 증거를 위해 죄인들의 적대감을 계속 견뎌냅니다.